

간단한 인생 (열왕기하 17:7-18)

오늘은 간단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나누겠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적군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지키게했다는 말씀이 나온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수꾼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의 파수꾼이 나라를 지키고 개인과 교회와 사업을 지키는 것이다.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소원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소원을,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누리고 전쟁하고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3세팅안에 들어 있는 단어들이다. 내 인생이 세상을 파수하는 망대와 같은 것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확실한, 굳건한 반석과 같은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이다.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 이 기도가 안테나인 것이다. 이런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한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다. 요셉은 이 세가지 세팅이 자기 안에 있지 않았겠는가? 꿈으로 온 그 언약이 플랫폼이 되었을 것이다. 확실한 반석이 되었을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24시간 그 언약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영적 사실이 그의 인생 전체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다. 모세나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모세는 그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의 망대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 민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망대 같은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 언약을 잡고 우뚝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도바울이나 모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한나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평범한, 지금으로치면 권사님같은 분이였을 것이다. 어느날부터 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정말 망대같이 서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하는데, 한나는 그 시대의 메시지를 가진 자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상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졌다. 망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 한나가 잡은 언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예를 들려면 너무나 많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 작품 인생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작품 나온다. 오늘 다시 한번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1. 간단한 인생

어느 성공한 의사 한 분의 간증이다. 의대에 합격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보니 우쭐 했을 것이다. 의대도 들어가면 한 2년정도는 어렵지 않아서 좀 놀았다. 자연스럽게 교회도 등한히 했다. 그런데 어느날 피부병이 왔다. 온 몸이 비늘 투성이가 되었다. 문제가 왔으니 유명한 피부과에 돌아다녔을 것이다. 병원에서 이유를 잘 모르고 원인을 모르는 아토피라고만 한 것이다. 그래서 한 일년 고생했다. 어느날 누가복음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나아버렸다고 한다. 아주 간단하게 돌아왔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런 것이다. 이 분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답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간단한 일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 이스라엘이 망한 기록이다. 앗수르라는 큰 나라에 영원히 망

해버렸다.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정도 된다.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 9년에 앗수르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앗수르로 끌어갔다는 것이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남자들을 다 끌어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한대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잡혀갔다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기록을 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잡혀가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다 망해버리고 남자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앗수르 나라의 이방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았다.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앗수르 왕이 앗수르 사람을 사마리아 성읍에 데리고 가서 거주하게 했다는 것이다. 점령지역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 좀 가난하거나 불행한 자나 죄수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점령지에 가면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자가 없으니 이들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살게 된 것이다. 언약의 백성이 이상한 이방인들, 예전에는 개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아이를 낳아야 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이상한 성을 가진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가 낳았으니 껌먹이고 키운 것이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면 피를 토할 일이었다. 자기 아내와 여동생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잃은게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분통터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에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행해졌는가? 재산도 뺏기고 인간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는가? 그래도 말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피가 섞인 이 동네를 남아 있던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사마리아에는 아예 가지를 않고, 만일 사마리아 북쪽 지역으로 가야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갔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이다.

문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언약으로 잡으라는 말이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정도냐면 9절 중간쯤에 보면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산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는 것이다. 산마다 나무마다 전부 우상이 있는 것이다. 16절에 보면 두송아지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바알까지 섬겼다고 하였다. 일월성신을 섬긴 것은 해달별을 섬겼다는 것이다. 온갖것을 다 섬기고, 17절에는 자기 자녀들을 불가운데 보내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다. 자녀를 불가운데 보냈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할 때 동네에서 아이 하나를 선택해서 불에 태워서 재물로 바쳤다는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죽이라고 말했다. 율법에.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했고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끝나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수도 있다. 심한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다. 우상숭배 안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우상숭배 안하면 이런 일 안 일어난다. 우상숭배는 하면서 이런 일 없애주라고 하면 안된다. 우상숭배를 안하는 방법은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안하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대부분.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지만 39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하였다. 그러

면 모든 원수에서 건지신다 하였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다. 언약으로 살면 저주 없다. 하나님 약속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언약이 회복된 개인과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구약의 결론 아닌가? 다 안다. 어떤때는 진짜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 쳐들어 온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다. 이런 것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보면 왕이 언약 잡고 사는 사람이었다. 얼마전에도 그 큰 군대 아람 군대가 자기들만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도망갔던 일도 있었다.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수거하는데에만 삼일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한두명이 거둔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거두는데도 그렇게 걸린 것이다. 구약 성경은 전부 이런 이야기이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 중에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 실수 때문도 아니다. 분명 이야기 하셨다. 언약 중심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다. 선명하고 간단하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것 없다. 내가 언약을 회복하면 된다. 그것이면 너에게 저주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그러나 이유는 필요 없고, 니가 내 언약을 떠나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왔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회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언약 잡아도 안돼?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공부를 일부러 못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 잘 안해도 된다.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더 증인된다. 머리는 나쁜데 응답이 평생 연속이라면 더 증인되는 것이다. 언약으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것인데, 오해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스라엘은 운명에 잡힌것도 아니다. 실수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나라가 작아서 그런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하나 이야기 했다. 왜 내가 말하는 언약을 안하냐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약 안에 있다. 다른 아무말도 필요 없고 언약 하나로 끝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에서 돌아오라 했는데 끝까지 안 돌아왔다. 결국 이렇게 되어 버렸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인생은 간단하다고. 언약 회복하고 언약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심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망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안테나인 것이다. 절대 저주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대같은 인생된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진 복음 보고 구원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기도이다. 보좌의 축복, 우주를 살리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왜 동네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할 것인가? 가능하다 크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우주시대인데.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언약 되기 바란다.

2. 정시고백

이 언약을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고백하자는 뜻이다. 성경에는 예도 많이 있고 직접적으로도 하신 말씀도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출 29:38-39절이다. 거기 보면 네가 제단위에 드릴 것은 일년된 어린양 두 마리를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매일 드리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 계속 아침저녁으로 드릴 번제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완성할때까지는 계속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론 제사는 이것 말고도 많은 제사가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어린양이다. 그리고 많은 다른 형태의 제사를 이렇게 한 것은

다양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어린양, 참 의미가 있다. 아침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백하고 저녁에 또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는 것이다. 거기서 조금 더 보면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고 말씀하실것이라고 하셨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그 앞,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대대로 드려야 할 번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너를 거기서 기다리겠다. 너는 이 약속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오라는 것이다. 니가 거기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말씀 받아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약속의 피를 잡고 예배 드린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치유, 역전이 일어난다. 아주 중대한 약속이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가?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때에 말씀 받아야 한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최종 목표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나에게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된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정복이 된다. 그것이 말씀이다. 이 약속의 피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언약의 피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양 잡을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약속의 피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제사를 매일 드려야 한다. 완성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고백해야 한다. 여기에만 뱀의 머리 박살되고 여기서만 저주가 무너진다.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 말씀을 주신다고 하였다.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비교가 된다. 아브라함은 불신앙 하는 중에서도 단 쌓는 것을 잊지 않았다. 롯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는 한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단 기록은 없다. 왜일인지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후손까지 다 망했다. 유황불 내려왔을 때 모아 놓은 재산도 다 날라갔다. 성경에는 롯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기록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답을 하신다. 전체의 기록은 약속의 피제사를 회복한 사람과 왕과 시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였다. 전부 기적의 역사였다. 이유는 하나 뿐이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죽인 이유, 단하나, 언약을 회복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롯은 왜 망했는가 하는것도 이 눈으로 보면 그는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약속의 피를 행하지는 않았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고통중에 불신앙도 했다. 그러나 단을 쌓았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고백을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언약의 피 때문에 회복된 역사에 대해서는 예외 하나 없이 전부 그대로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너무나 잘 아는 것, 400년동안 노예였는데, 피를 바르는 날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믿음대로 행한 그 날 나왔던 것이다. 이 언약의 피를 정시로 고백하기 바란다. 내용은 그리스도 3직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간단하다. 그리스도 삼직, 그런데 거기에 다 있다. 성경 구절도 너무나 간단하다. 그런데 거기에 다 있다. 각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깊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다른데로 돌아다니지 말기 바란다.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다른데로 돌아다니는가 아닌가는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안다. 만일 여기 들어오는데 생명을 걸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도 컴플레인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들어오기 바란다. 이 언약의 제사 회복하면 성공하고 응답 받는다. 저절말로 답을 내고 언약 잡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증인되기 바란다.